



■ 20원 등록금과 700만원 등록금 사이에서— 니니(nini)에서 시시(sísí)로 나아가기

멕시코시티에서
강혜원

1. 수치로 보는 멕시코와 등록금

국토가 남한보다 9배나 크고, 인구는 2배 많은 1억 1천2백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 멕시코. 멕시코 인구 중 상위 10퍼센트의 부자가 국가 소득의 43.1퍼센트를 차지하고, 하위 20퍼센트의 빈곤 인구가 소득의 3.1퍼센트를 가져가는 나라.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인구 5분의 1이상이 극빈층인 나라. 총 인구의 76퍼센트가 도시에 거주하고 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 아홉 곳이 전체 인구 3분의 1의 터전이 되는 멕시코. 도시로 몰리는 이곳 최고의 대도시이자 수도인 멕시코시티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밀집해 있다.

2010년 IPSOS사가 조사한 멕시코 전국 대학평가 순위 상위 10위까지를 보면, 1위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 이하 'UNAM'으로 표기함), 2위 몬테레이 고등공업대학(ITESM), 3위 국립산업기술대학(IPN), 4위 이베로아메리카 대학(UIA), 5위 바예데멕시코 대학(UVM), 6위 멕시코공업자치대학(ITAM), 7위 아나우악 대학, 8위 라사예 대학, 9위 멕시코시립대학(UAM),

10위 과달라하라 대학이다. 지방에 있는 과달라하라 대학을 빼고 1위부터 9위까지 모두 멕시코시티에 있다. 이중 1, 3, 9위만이 국·공립대다. 1, 2위 대학의 등록금을 살펴보자면, 2위 몬테레이 고등공업대학에서 기숙사비, 의료보험료, 주차비를 빼고 수업료만 고려한 2011년 학기 당 등록금은 77,975페소(약 785만 원)이며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이 의료보험료와 등록금, 신용보증금 등을 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등록금 액수는 81,010페소(약 836만 원)에 육박한다. 반면에 1위를 한 멕시코자치대학의 등록금은 학기 당 20센타보(약 18원)이다. 멕시코시티의 지하철 요금이 3페소(약 272원), 멕시코시티 하루 최저임금이 59.82페소(5,424원)를 고려하면 멕시코국립대의 등록금은 무료나 다름없다.

대학평가 순위	국·공립대 등록금(단위: 페소)	사립대 등록금 (의대제외 일반학과, 단위: 페소)
1위	UNAM 0.2	ITESM 77,975
2위	IPN 400	UIA 67,905
3위	UAM 185.51	UVM 32,300

2. 멕시코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멕시코에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 가운데 62퍼센트가 사립이다. 멕시코시티에만 총 83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국·공립대는 16개, 사립대는 67개다. 앞서 말한 UNAM, IPN, UAM외에도 멕시코시티대학(UACM)의 등록금은 없으며, 국립교육대학(UPN)의 등록금은 첫 학기 120페소(약 10,900원), 이후 학기는 20페소(약 1,800원)다.

OECD 회원국의 국·공립대 비율이 평균 78.5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멕시코의 사립대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에 속하는 현실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는 수도를 비롯한 몇몇 대도시의 중·상류층 자제에게만 해당된다.

2010년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전국의 만 20세에서 24세까지의 멕시코 청년 9,892,271명 중 22퍼센트만이 대학교에 다닌다. 이 22퍼센트는 멕시코 고등학교 졸업자의 32퍼센트가 진학한 결과다(2010년 OECD 통계). 즉, 멕시코 청년 다섯 사람 중 한 사람만이 대학을 다니는 셈이다. 이러한 열악한 고등교육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펠리페 칼데론 정부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2012년에는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 30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2025년에는 청년인구 절반의 대학 진학과 고등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교육프로젝트’를 국가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Yazmin 논문 참조).

대학 진학률이 저조한 주요한 이유는 교육시스템의 도시 집중화와 교육의 양극화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0년 세계 청년 취업동향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15~24세 사이의 청년 20퍼센트가 ‘공부하지도 일하지도 않는’ (ni estudia, ni trabaja) 백수, 즉 ‘니니’ (NINI)라고 한다. 그리고 이 그룹의 67%가 여성이다. 멕시코 니니의 경우는 21%에 해당한다. 신조어 니니는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청년의 실업상태를 반영한다. 전체 인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62만 명이나 더 많은 멕시코의 경우에도 여성일수록, 시골에 거주할수록, 원주민일수록 교육기회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양극화가 심한 멕시코 사회에서 교육소외자와 빈곤층에 속하는 이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국·공립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멕시코의 노동자에는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비공식부문 노동자가 있다. 멕시코시티 경제발전부 자료 통계만을 놓고 보면, 노동청에 등록된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5,000페소(약 45만 4,000원)이며, 비공식부문 노동자는 2,000페소(약 18만 2,000원)이다.

평균 임금 2,000페소 노동자의 자녀들이 사립대에 들어간다면, 등록금 마련은 우골탑보다 더한 것을 쌓아 올려도 불가능할 것이다. 매년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서 교육비도 예외가 아닌데, 멕시코시티의 초등·중등·고등교육 과정의 등록금이 포함된 교육비 항목에 대한 2009년, 2010년, 2011년의 인플레이션율은 각각 0.23, 0.34, 0.31퍼센트 씩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멕시코시티 경제발전부 통계). 소위 일반 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대학은 UNAM 및 다른 공립대이지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가계형편이 대학 진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

3. 멕시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멕시코에서 교육과 국가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 UNAM의 전신은

1551년 9월 21일 건립된 멕시코왕립교황부속대학(Real y Pontificia Universidad de México)이다. 이 학교는 누에바에스파냐의 부왕과 교회의 지원 속에 수세기 동안 발전해 왔으며, 1910년 개교하여 1933년 국립대에서 국립자치대학으로 법적으로 변모하기까지 국가와 직접 연관됐다. 이후 1968년의 학생운동과 정부의 탄압을 계기로 UNAM은 ‘무상교육’과 ‘자치’의 가치를 실천하고 투쟁하는 대학전통을 만들어 왔다. 1968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과 학살로 정당성을 잃은 디아스 오르다스 정부와 이를 계승한 루이스 에체베리아 알바레스 정권(1970~1976)은 자기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UNAM에 대한 예산 지원을 크게 늘렸다. 1970년 연방교육비보조금은 총지출의 23.5퍼센트에서 1976년 52.4퍼센트로 대폭 증대 됐다. 1970~1975년에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할당은 거의 7배나 오른 반면 등록학생 수는 단지 122퍼센트 증가했을 뿐이었다. 1982년의 외채위기를 맞은 멕시코는 정부의 교육예산을 급격히 축소했다. 1970년 창설한 전국과학기술위원회(CONACYT)의 방만한 운영과 경제 위기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대학교육 개혁의 구실이 됐다(강경희 논문 인용). 등록금 인상이라는 카드로 대학 재정난을 학생부담으로 전가하여 해결하려던 UNAM 당국은 1999~2000년에 1년이 넘도록 학생들의 학교폐쇄와 파업이라는 대응에 부딪히게 된다. 1년여의 학생파업의 결과 UNAM의 등록금은 여전히 0.2페소이지만, 2009년 신종플루와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에 동조하는 대학당국과 정부는 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있다. 행정부의 예산안에서 삭감 대상 우선순위에 드는 것은 언제나 교육부문이다.

1990년에서 2009년까지 멕시코 국내총생산에서 국가의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공적부문에 대한 지출이 2006년부터 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0~1991	2000~2001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총액	4.1	6.4	6.5	6.3	6.2	6.3
공적부문	3.7	5	5	4.9	4.9	5
사적부문	0.3	1.4	1.4	1.4	1.3	1.3

(단위: 퍼센트)

국내총생산 중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출은 2006년에 1.4 퍼센트에 지나지 않았고, 2009년에는 0.9퍼센트로 줄었다.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1990년도부터 2009년도 공립대 과정에서 학생 1인당 국가의 교육비 지출은 아래와 같다.

	1990~1991	2000~2001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지원액	4,600	34,100	45,600	48,800	51,300	53,900

(단위: 페소)

1991년에서 2005년 사이의 증가액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멕시코가 대학교 학생 1인당 정부의 투자가 OECD회원국 중 제일 저조한 국가 중의 하나임은 최근 몇 년간의 OECD 통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UNAM의 2010년 통계연보 가운데 대학 수입·지출 예산안을 살펴보자.

2010년 수입 예산

항목	금액(페소)	비율(%)
교육 서비스	193,000,000	0.7
서비스 및 교육생산품	2,517,676,000	9.3
대학 자산 관련 생산품	294,927,000	1.1
대학 소득 총액	3,005,603,000	11.1
연방정부 지원액	24,060,249,148	88.9
합계	27,065,852,148	100.0

2010년 지출 예산

항목	금액(페소)	비율(%)
대학이상 교수 활동비	12,570,742,860	46.5
부설고등학교 및 기술학교 교수 활동비	3,597,333,901	13.3
연구비	7,256,642,076	26.8
대학 증축비	2,280,491,831	8.4
대학 업무집행비	1,360,641,480	5.0
합계	27,065,852,148	100.0

멕시코의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2011년 예산지원을 6조 5억 페소로 늘리기 위해 로비를 벌였지만 국회에서는 2조 7억 페소로 결정했다. 줄어든 파이도 항상 UNAM이 많이 가져간다. 2011년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에서 최대 수혜자는 UNAM과 IPN이었다. 다른 공립대들은 늘 예산 할당에서 뒤쳐진다. UNAM의 2010년 수입 예산안에서 연방정부 지원이 88.9퍼센트라는 사실, 총 지출예산의 59.8퍼센트가 교수의 활동비로 나간다는 사실은 UNAM에 밀려 예산 배분에서 더욱 열악한 다른 공립대의 정부 지원과 다른 주 공립대의 학생 지원 비율이 얼마나 적을까 가늠케 해 준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지원은 멕시코 대학교육의 대학 간 양극화, 도시와 시골 간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

4. NINI에서 SISI로

멕시코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고, 향후 근대화를 이끌어 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대학의 위상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유전유식, 무전무식의 결과를 양산해 내는 불평등의 산실로 변질돼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교육은, 특히 고등교육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에서 당연한 시민 권리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제는 더욱 많이 생산하는 데 주력하기보다(인구의 5분의 1이 최극빈층이지만, 세계 최고의 갑부 또한 멕시코 사람이다)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한 단발적 공약남발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바깥에서 바라보는 대학교육 제도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1910년 멕시코 혁명의 결과로 나온 1917년 멕시코 헌법 제1장 3조 4항의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은 무상이다”라는 선언은 사립대 비율이 높은 멕시코에서 공허하게 들린다. 공부하지도 일하지도 않는 NINI가 아니라,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일도 하는(sí estudia, sí trabaja) “시시”(SISI)를 상상해 보고 싶다. 멕시코와 한국의 젊은 우리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고, 임금걱정 없이 일하고 싶다.

참고자료

1. CRUZ LOPEZ, Yazmin and CRUZ LOPEZ, Anna Karina, La educación superior en México tendencias y desafíos. Avaliação (Campinas) [online]. 2008, vol.13, n.2[cited 2011-06-20], pp. 293-311. <http://www.scielo.br/scielo.php?script=sci_arttext&pid=S141440772008000200004&lng=en&nrm=iso>.
2. 강경희, “신자유주의와 멕시코 대학개혁- UNAM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1호 (2006), <<http://www.iberoamerica.kr/data/file/8-1-1-001.pdf>>
3. 멕시코 통계청 <<http://www.inegi.org.mx>>
4. 멕시코시티 경제발전부 자료
4-1. <<http://www.sedeco.df.gob.mx/programas/prioritarios/parques/indicadores.html>>
4-2. <http://www.sedeco.df.gob.mx/indicadores/abasto/2011/enero/inflacion_banxic_enero_2011.pdf>
5. OECD 통계 <www.oecd.org>
6. 기타검색
6-1. <<http://lanotamexico.com/nacional/universidades-inconformes-con-aumento-de-presupuesto>>
6-2. Eucacion a debate <<http://educacionadebate.org/2010/07/22/%C2%BFque-paises-de-la-ocde-gastan-mas-en-educacion/>>

강혜원 - 멕시코 인테르콘티넨탈 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중
